



매, 그 영특함과 날렵함으로 나는 하늘의 제왕이여!

순수 토종 민속 스포츠이자 사람과 야생동물이 어우러져 벌이는 겨울스포츠가 있으니 바로 매사냥이다. 아직도 그대로 보호되어 내려오고 있는 진안의 역동적인 매사냥터로 떠나본다.

글 | 최성민 여행전문기자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토종 스포츠

겨울은 온 대지가 퐁퐁 얼어붙기에 생명체들에겐 시련의 계절이다.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겨울에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을 지킨 채 봄을 맞기 위해 움츠림 속에 바짝 긴장까지 해야 한다. 이처럼 혹독한 겨울에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이 활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방 안에서 움츠리고만 있기보다는 눈 덮인 산야에서 뛰어 다니면서 '이한치한(以寒治寒)'으로 겨울을 날려버릴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말이다.

겨울에 호쾌함의 절정이요, 신나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이 있다. 순수 토종 민속 스포츠이자 사람과 야생동물이 어우러져 벌이는 신나는 겨울나기 한마당, 매사냥이 바로 그것이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마을 산자락, 마이산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눈세상에서 사람과 매, 그리고 꿩이 뒤엉켜 죽자살자 한 판을 벌이고 있다. 이곳이 바로 서구화 산업화에 밀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귀중한 민속, 매사냥이 살아 있는 현장이다.

매사냥은 야생 매를 받아 길들여서 꿩을 잡아오도록 하는 겨울철 전통 사냥의 일종이다. 들짐승을 길들여서 들짐승을 잡아 오도록 하는 일이니 얼마나 사람의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겠는가. 그래서 매사냥이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람이 자연으로 자연을 제압하는 '신토볼이 자연 스포츠' 라고 할 만하다.

매사냥은 고조선 시대에 북방 수렵 민족인 숙신족으로부터 들어왔다. 백제 때는 이를 일본에 전해 주었고 일본은 또 미국 등 서구에 전파시켰다. 고려 때는 '응방'이라는 관청을 두고 매사냥을 국가적으로 관리했으며 원나라에 '해동청 보라매'라는 사냥매를 조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또 조선 시대에는 '내응방'이라는 관청을 두고 군역 대신 매



밝은 눈을 가진 매는 꿩이 어디 있더라도 찾아내어 발가락으로 꿩을 잡아챈다.

를 잡게 했으며, 그 후 일제 때는 허가제 아래에서 매사냥의 맥이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60~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이농 현상과 자연 훼손으로 매사냥은 어느 날 우리 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래서 정신문화 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도 사진이 아닌 그림밖에 나오지 않는다.

매와 하나되는 진안 매사냥꾼들

진안의 매사냥이 발견된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필자가 겨울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찾아내서 기사화했던 곳이다. 그때는 눈도 적고 다른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올 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완벽한 매사냥 판이 벌어졌다. 진안 매사냥의 주인공은 올해 86세인 전영태 옹이다. 전 옹은 20대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매사냥을 해왔다. 3년 전 문화관광부의 조사 결과 '전영태 패' 매사냥이 전국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매사냥꾼들이라고 밝혀지기도 했다.

전 옹은 해마다 겨울이면 야산에 매그물을 쳐서 받은(‘잡는다’고 하지 않고 ‘받는다’고 한다.) ‘보라매’ 한 마리와 전 겨울에 받아서 전 옹의 손에서 한 해를 난 ‘수진이’ 등 두 마리의 매를 부린다. 나아가 채 한 살이 안 된 보라매는 활동이 왕성해서 부지런한 반면 노련하지 못한 게 흠이다. 그에 비해 수진이는 활동력은 떨어지나 노련해서 사냥 적중률이 높다.

매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보름 전부터 훈련을 시켜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 번갈아가면서 팔뚝에 받아 앉힘으로써 낮가림을 없애는 것이 훈련의 시작이다. 그 다음엔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줄을 매고 밖에 나가서 밥을 주면서 부르는 ‘줄밥 먹이기’이다. 이 두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출



전 옹은 '보라매'와 '수진'이 두 마리의 매를 부린다.



매가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는 전영태 옹

전을 하게 되는 데, 사냥 전날 매를 적당히 굶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굶기면 힘이 약해서 사냥을 못하고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니 사냥할 생각을 않는다. 말하자면 사람이 예뻐서 사냥을 해 오는 게 아니라 제 배가 고프니 꿩을 잡는 것이다.

역동적인 모습의 매사냥판

매의 컨디션 조절이 끝나면 전 옹이 매를 팔뚝에 엮고 앞장을 서고(이 역할을 '봉받이'라고 한다.)

대여섯 명의 '꿩털이꾼'이 뒤따라 사냥에 나선다. 꿩털이꾼들은 어느 '꿩밭'에 꿩이 몇 마리 숨어 있는지 대충 안다. 털이꾼들은 "휘이 휘이-"하며 꿩을 찾다가 꿩이 튕겨 오르면 "애기야!"하고 외친다. 그러면 전망 좋은 곳에서 매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봉받이는 곧바로 매를 내보내면서 "애기야!"하고 응답한다. 이 외침은 매와 꿩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나는 데 있어서는 꿩이 매보다 훨씬 빠르다. 그런데 꿩은 매만 보면 무서워서 숨기에 급급해 한다. 급하면 꿩지는 나 몰라라 하고 대가리부터 쳐박는다. '눈은 매 눈'이라고, 그때 밝은 눈을 가진 매는 꿩이 어디에 숨더라도 찾아내고 만다. 꿩을 본 매는 드센 발가락으로 꿩을 잡아채고 털부터 뜯기 시작한다. 그런데 꿩이 늘 일반적으로 매에게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꿩에게도 조물주가 주신 최소한의 무기가 있다. 노련한 꿩은 땅에 등을 대고 누워 있다가 덤벼드는 매를 길고 억센 다리로 내 건어차서 뇌진탕으로 죽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이 때 좀 노련한 수진이 정도라면 날개 죽지에 진흙 먼지를 잔뜩 묻히고 꿩 위에 날아와 털면서 꿩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제압하기도 한다.

매가 꿩을 쫓아가면서 부리는 묘기도 볼 만하다. 잔솔밭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꿩이나 산토끼를 매가 경중경중 날아서 쫓는 모습을 '북 나들이'라고 한다. 벼들에서 북이 벼를 짜느라 드나드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앞서 날아간 꿩이 산봉우리를 넘을 때 뒤쫓던 매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봉솥굽'이라고 한다. 꿩이 산 너머 숨는 곳을 미리 지켜보기 위한 동작이다. 최고의 묘기는 '공중잡이'라는 것이다. 날아가는 꿩을 공중에서 그대로 잡아채는 것인데, 매가 꿩을 붙



들고 내려오면서 물가에 안 떨어지도록 조종을 하는 모습이 볼 만하다.

매가 꿩을 잡아서 털을 뜯기 시작하면 몇 점 먹인 뒤에 곧 빼앗아 내야 한다. 너무 빨리 빼앗아 내면 “땀날 잡아 봐야 헛 것이제!” 하면서 다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또 너무 많이 먹도록 내버려 두면 “이제 배부른 데 뭐하러 수고를 해?” 하며 달아나 버린다. 그 때 달아난 매는 한나절 쯤 지나서 배가 고파지면 다시 민가로 내려오는 데,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간 ‘시치미 떤 매’ 신세가 된다. 한창 매사냥이 유행할 때는 좋은 사냥매 갖는 게 서로 욕심이어서 남의 매 시치미(매 꼬리에 매방울과 함께 단 주인 이름표)를 떼고 자기 이름표를 다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이를 두고 “시치미를 떤다”는 말이 나왔다.

매로부터 꿩을 앗아내고 매를 진정시키는 일로 그날의 매사냥이 모두 끝나는 건 아니다. 잡은 꿩을 집 안에 가져와 꿩탕을 끓이면서 제2의 매사냥이 시작되는 것이다. 꿩탕을 가운데 놓고 사냥꾼들은 낮에 벌어들였던 매사냥의 관전꿩을 펼치느라 입씨름을 벌인다. 털이꾼들이 꿩을 잘못 털어내서 놓쳤느니, 봉받이가 매를 너무 늦게 내보내서 꿩이 산을 넘어가 버렸느니, 주로 남을 탓하기에 바쁘지만 그건 모두 다음 번 매사냥을 더욱 잘하자는 단합대회라고 할 수 있다.

오천년 전통을 이어놓은 일등공신

진안에 매사냥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형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진안의 지형은 ‘수태극 산태극’이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노령산맥의 산줄기들이 금강과 섬진강 자락을 감싸고 돈다. 따라서 으스스한 데가 많

아서 들짐승, 날짐승이 깃들일만한 곳이 많다. 또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고원의 가운데에 있어서 눈이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오면 들짐승들이 먹을 것을 잃게 돼 힘이 빠지게 된다. 게다가 흰 눈의 색 때문에 들짐승들의 색깔이 눈에 잘 띄게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것을 지키는 데 남달리 애쓰고자 했던 노인들이 있었던 것이 5천년 동안 전해져 온 우리 전통의 마지막 실증기를 이어 놓은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린 텅 빈 시골 들녘에서 그분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 민속 재현에 집착해 온 것이다. 그 노인들은 요즘도 들판에 나가면 젊은이들 보다도 훨씬 잘 뛰어 다닌다. 날이 멀다 하고 골프장이다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요즘 “얘기야!” “매 나간다!” 함성이 울려 퍼지는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매사냥 현장은 우리 것의 살아있음과 우리 자연의 활력을 말해주는 감동의 살판터가 아닌가 싶다. 🍷

사냥매의 종류

사냥에 쓰이는 매를 부르는 이름으로는 보라매, 산진이, 수진이, 삼계참 등 여럿이 있다. 가장 좋은 사냥매는 보라매다. 이는 태어난 지 채 1년이 안 된 젊은 매여서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다. 꿩이나 들짐승 기색만 있어도 튀어 나가려고 애를 쓴다. 늙은 매는 꿩을 보고도 안 나갈 때가 많아 사냥꾼들을 애태운다. 보라매는 배 전체에 갈색 세로무늬가 있어서 구별이 쉽다. 심성에 때가 안 묻어 있어서 훈련시키기도 좋지만, 경험이 적어 사냥 확률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태어나서 산에서 1년 묵은 뒤에 사람 손에 들어온 것을 산진이, 보라매가 사람 손에서 1년을 묵은 것을 수진이라고 한다. 삼계참은 사람 손에서 3년을 묵은 매이다. 사람 손에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 사냥 확률은 높으나 활동성이 떨어진다.

고려 때 원나라에 조공물로 바친 해동 청보라매는 백령도와 웅진반도 일대에서 나는 몸이 작고 날렵한 매로서 영리하고 사람 손에 얹고 다니기가 수월해서 사랑을 받았다. 해동은 고려를 일컫는 말이고 청보라매는 멀리서 보면 매에서 파란 기운이 나가거나, 매의 청정한 기상을 일컬어 붙인 이름인 듯하다.